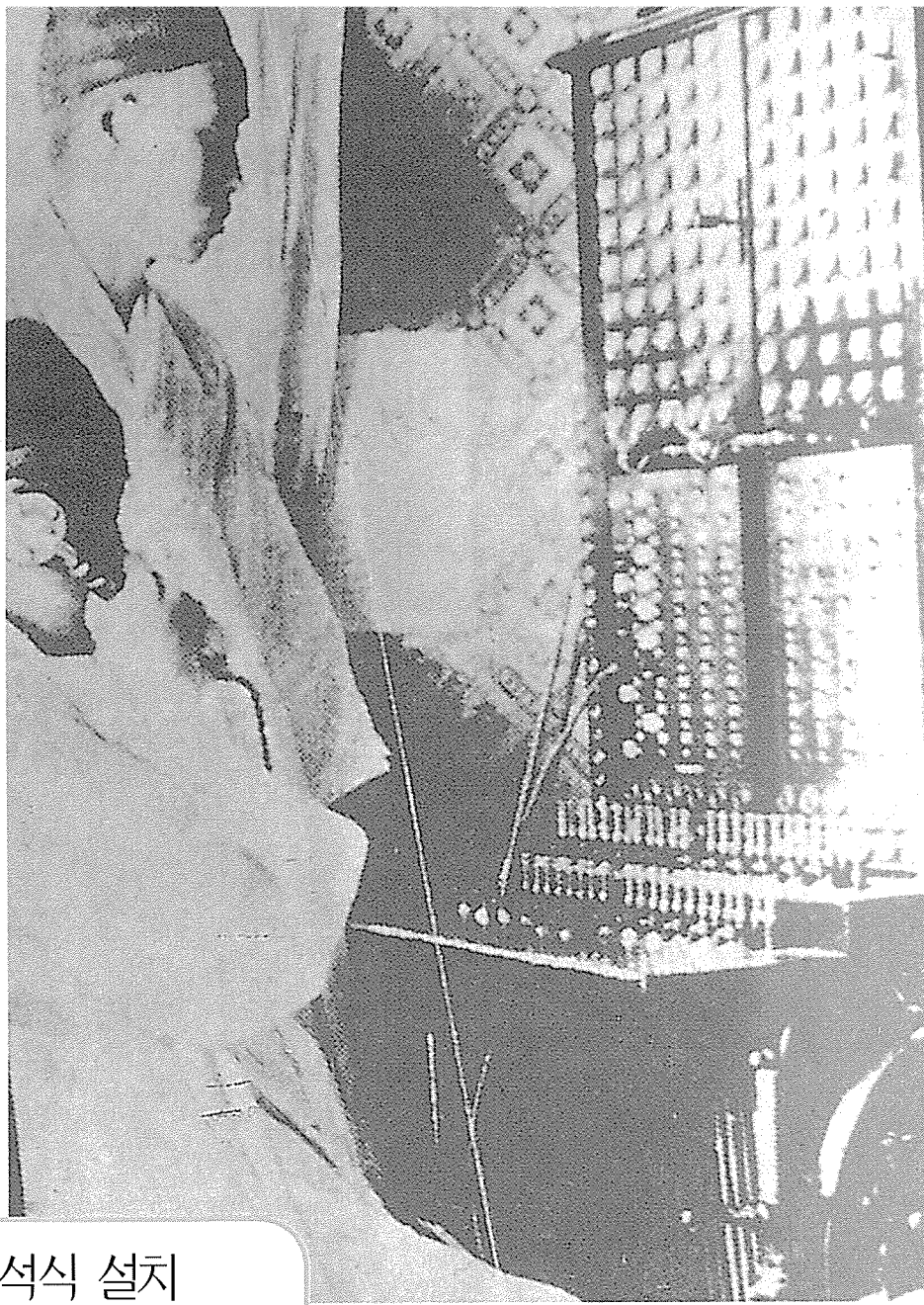


# 이 한창의 사진

## 100회선용 교환기 우리나라 최초의



### 1882년 궁중에 자석식 설치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된 1백회선용 자석식 교환기(上). 체신부는 지난 89년 국내 최초 1백회선 자석식 단식 교환기를 복원한 바 있다(下).

1882년 「상운」이 전화기를 전래한 후 궁중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1898년에는 자석식 교환기도 설치되었지만 특수목적용이었다. 1902년 3월 20일 서울~인천간에 통신원에서 경영하는 전화가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공중통신용 전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화사업 사상 최초의 일반용 전화사업이었다.

1902년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전화는 1924년에 이르러 서울~봉천간 국제전화로 개통되는 등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교환기분야에 있어서도 전화의 보급과 더불어 자석식 교환기에서 공전식 교환기로 발전되어 갔다.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전화기와 교환기의 형태가 어떤 종류이고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는 명확치 않지만 1905년 4월 30일(한일통신협정체결일) 당시 대한제국의 통신원이 보유한 전화기는 1백89대였다.

◇궁중에서 사용된 최초의 1백회선용 자석식 교환기



◇1899년 체신부는 국내 최초 1백회선 자석식 단식 교환기를 복원하였다.